

세계가 주목하는 수영축제 시작됐다



모습 드러낸 수구경기장·국제방송센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8일 앞둔 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 수구경기장과 국제방송센터(IBC·왼쪽)의 공정이 마무리됐다. 국제방송센터 건물에 광주수영대회를 일리는 홍보물이 설치돼 대회 개막을 알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D-7

지구촌 최대 규모 수영 축제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 선수단이 광주에 속속 도착하고, 선수촌이 문을 여는 등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5면>

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광장에서 개촌식을 갖는다.

개촌식에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 국제수영연맹(FINA) 코넬 마르를레스쿠 사무총장, 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이날 개촌식을 시작으로 대회 참가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독일 국가대표 선수단 선발대와 한국

오늘 우산동 선수촌 개촌식
 독일 선수단 1호 입촌 기록
 주말 각국 선수단 속속 입국
 경기장 출입 통제 안전점검

선수단 68명, 미국과 네덜란드 선수단 등 100여명이 입촌하게 된다. 독일 수영 국가 대표 선수단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수영대회 참가 국가 선수단 중 첫 번째 선수촌 입성을 기록하게 됐다.

독일 선수단을 시작으로 각국 선수단의 입국도 본격화되고 있다. 주말인 6일에는 일본 22명 등 12개국 186명, 휴일인 7일에는 영국, 이탈리아 등 14개국 183명이 속속 입촌한다. 특히 대한민국 선수단은 오는 16일 나머지 41명이 입촌해 대회기간 중 총 109명이 선수촌에 머문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수단은 경쟁 경기가 열리기 전인 7월 19일까지 모두 입촌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

는 외국 선수단은 KTX 임시편을 타고 서울을 거쳐 광주송정역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게 된다.

코레일 측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거쳐 광주송정역으로 내려오는 임시편을 운행하며, 운행기간은 대회 기간을 포함한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다.

조직위는 또 선수촌과 대회 경기장 주요 시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테러위험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남부대 주경기장은 4일 오후 6시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출입 통제가 시작된다.

이 밖에 염주체육관은 6일 오전 9시, 여수엑스포 공원과 국제방송센터는 7일 오전 9시, 조선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일반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출입 통제 전 탐지견을 통한 폭발물 탐지와 소방·전기·가스 등 각종 위험물 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각 시설에 보안 스티커가 부착된다. 사전에 등록된 AD(인가) 카드 소지자만 검문검색을 통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출입은 경기관람을 위한 입장 외에는 전면 통제된다.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의와 안전 등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현지시간) 등록 마감 결과 FINA 회원국 209개국 가운데 194개국 7507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참가 선수는 2639명, 임원은 155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6회 러시아 카잔 대회의 184개국 선수 2413명, 17회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의 177개국 선수 2303명을 훨씬 넘어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기념
 광주·전남 청년작가 13인전



10~28일... 은암미술관

지구촌 축제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연다.

이번 대회는 세계 193개국에서 모여든 3000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경기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광주일보사는 수영대회조직위원회와 함께 광주·전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초대,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을 개최합니다. <관련기사 16면>

- 주최=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광주일보사·은암미술관
- 후원=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靑 NSC 회의 "日 수출규제는 보복적 성격"

청와대는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이 이런 결론을 내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對) 일본 대처 강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회의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내면서 애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표현했다가 '보복적 성격의 조치'라고 이를 수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Sulwhasoo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LIMITED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